

# “해조류 열차 운영·어판장 경매 체험 어때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내년 4월 개최 앞두고  
군민 다양한 의견 쏟아져

“박람회장 체험부스가 일렬로 구성된다. 마치 열차와 같은 구조다. 이를 ‘해조류열차’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어떨까.”

“바다체험장이 양식장을 보는 것만이 아닌 전복 가두리 체험, 해조류 양식체험, 시식, 현장경매 체험 등 현장감 있는 체험공간이 됐으면 한다.”

“모바일 입장권은 판매망 구축이 쉽고, 특산물 특별할인과 연계할 수도 있다. 또 선물용으로 활용하기도 좋다.”

내년 4월 개최하는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에 대한 완도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조류를 테마로 한 압화·상징물 설치, 해조류 음식 시식회, 전복 체험장 조성, 바다 숲 수조 설치, 박람회와 연계한 완도 관광지 통합 이용권, 모바일 입장권 발행...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내놓은 군민들의 생각이다.

조직위는 군민 의견 중 추진 가능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전시 연출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직위는 주민의견 수렴에 이어 지난 17일 전시관 설치 및 연출 기본계획을 담은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정정바다관’을 주전시관으로 하고, ‘생명관’·‘환경관’·‘해양치유관’을 부재관으로 운영한다. 전시주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이해할 수 있게 꾸민 ‘이해관(인트로관)’도 마련한다.

정인호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사무국장은 “군민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1일 완도문화원에서 박람회 추진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했다.

〈완도군 제공〉

의 값진 의견과 중간보고회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완도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박람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는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를 주제로 내년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24일간 완도 일원에서 열린다.

박람회 조직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대도시에서 홍보물을 게시하고, 차량 홍보 스티커 부착 등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ejhung@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행사장 조감도.

# 해남군, 전남 첫 15t급 어선 인양기 설치

울 상반기 화산면 구성항 등 19곳  
어획물 하역 등 효율적 대처 기대

해남군은 전남 연안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15t급 어선 인양기를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항·포구에 설치돼 있는 어선 인양기는 어획물과 양식기재 등 하역은 물론 기상 악화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해 어선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남군은 선박 규모화 등으로 기존 여항에 설치된 10t급 인양기가 역할을 못하고, 각종 재난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에 따라 인양기의 규모를 15t급으로 높여 설치하기로 했다.

해남군은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산면 구성항 등 19개소에 15t급 인양기 설치를 상반기 중 마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노후화로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인양기 5대를 포함해 21기를 새롭게 설치한



해남 화산면 구성항에 설치된 10t급 다목적 인양기.

것을 포함해 지난 2003년부터 총 97기의 어선 인양기를 설치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어선인양기는 어촌의 부족한 노동력 해결과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어촌에서

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물”이라며 “15t급 시설 설치로 어민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비 지원  
완도군, 3년마다 25만원씩 혜택

완도군이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돕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검진비를 3년에 1회,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완도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375명(3월 기준)으로, 지난해 82명이 검진을 받았다.

결혼이주여성 A씨(여·25)는 “언어의 어려움과 비싼 검진 비용 때문에 건강을 챙기지 못했으나, 완도군의 고마운 지원 덕분에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군민의 일원으로 생활에 잘 적응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ejhung@

귀농산어촌 체류형지원센터 공모  
해남군 선정...사업비 30억 확보

해남군은 전남도가 주관한 ‘2020년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건립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체류형 지원센터는 도비 15억원 등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예비 귀농산어촌인이 일정 기간 가족 단위로 거주하면서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 사업을 통해 농촌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한편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토지·주택 정보 등 종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해남군 귀농귀촌희망센터가 있는 계곡면 둔주리에 자리해 체류형 주택, 교육시설, 공동체 실습농장, 보육실·휴게실·도서관·체육단련실 등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영농기술교육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귀농 실행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해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귀농산어촌 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농산어업에 필요한 미래 후계인력을 육성하겠다”며 “농어촌 공동화와 고령화를 극복하는 귀농귀촌 1번지 해남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이 진도개 혈통 보존을 위해 우수 혈통 수컷 252마리를 선발, 지정했다.

〈진도군 제공〉

우수 혈통 진도개 수컷  
진도군, 252마리 지정  
보호료·장려금 지급도

진도군이 진도개 혈통 계승·유지를 위해 우수 혈통 수컷을 선발했다.

진도군은 진도개 혈통 관리를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52마리의 우수 혈통 수컷을 선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진도개심사위원회 심사에 합격하거나 진도개 선발대회 선견조에서 우수상 이상 입상한 진도개 중 생후 2년에서 6년 사이의 수컷이다.

이 수컷은 교배실적에 따라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해 보호료를 차등 지급받는다. 상·하반기 분할해 지급 예정이다.

또 진도개페스티벌이나 우수 진도개선발대회 등 각종 진도개 행사에 참여할 경우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의 우수 혈통 보존을 통해 국경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



**클래식 스타일**

Classic |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 |



